



◀ Insight

보다 더 완전하고 친환경적이며 건강한 식품시스템에 기여하는 금융

◀ Focus

아프리카 영양 불균형과 빈곤 해소의 열쇠를 '채소'에서 찾다

◀ 특별기획

- 서아프리카 쌀 생산 및 이용 현황과 자급 달성을 위한 노력
- 맞춤형 건강식의 핵심으로 부상 중인 메디푸드-케어푸드 시장 전망

# Contents



FAO 한국협회는 1957년 FAO 국가위원회 성격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식량·영양·농림수산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와 FAO간의 연락·조정, FAO 등 국제기구 자료 및 정보의 국내 보급, 농수산부문 국제교류 협력 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FAO 한국협회 웹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FAO 한국협회  
페이스북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FAO 한국협회에서는 본지에 실린 국제기구 뉴스를 주기적으로 정리하여 국제기구 농수산동향 모니터링(이메일)을 통해 발송하고 있습니다. 보다 신속하게 자료를 받아보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monitoring@fao.or.kr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 협회 자체 번역계재

## INSIGHT

### 06 보다 더 완전하고 친환경적이며 건강한 식품시스템에 기여하는 금융 / Vanesa Rodriguez Osuna

농식품시스템 전환 가속화에 대한 지원 의지 거듭 밝혀

- 맹그로브 보호를 위한 전 세계적 노력 강화
- FAO, 야심찬 기후전략을 위한 행동계획 발족

## FOCUS

### 08 아프리카 영양 불균형과 빈곤 해소의 열쇠를 '채소'에서 찾다 / 장성화·서윤희

## 36 이달의 신간 ★

## 세계 농수산 동향

## 38 그림으로 보는 통계

## 40 대륙별 농업정책 스케치 ★

## 42 EU ★

- 그린딜: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및 산림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지불제도를 위한 새로운 지침

## 44 WTO ★

- Okonjo-Iweala WTO 사무총장, UNFSS+2에서 푸드시스템 전환에 대한 무역의 역할 강조

## 46 WHO ★

- 세계 모유수유 구간을 맞아 WHO 및 UNICEF 사무총장 공동성명 발표

## IN FAO

### 14 FAO 식량가격지수 ★

- 7월 FAO 식량가격지수, 전월 대비 1.3% 상승

### 20 Special Feature ★

- 식량안보와 영양을 위한 농식품시스템 내 청년의 참여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정책 권고사항

### 24 국제기구에선 무슨 일을 할까? ★

- FAO와 지속가능발전목표 (1) : 4대 개선을 향한 FAO의 노력

### 28 FAO NEWS ★

- FAO, UNFSS+2 폐회 자리에서 각국의



48 UNCTAD ★

- COP28에서 주목받는 기후행동에서의 무역의 역할

50 IFPRI ★

- 러시아, 흑해곡물협정 종료: 우크라이나와 전 세계에 다가올 미래는?

56 IFAD ★

- 식품시스템 전반에 걸쳐 양질의 일자리를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

58 UNFCCC ★

- 지속가능한 미래로의 공정하고 포용적이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 지원
- 패션업계의 탄소발자국 경감 방법을 보여주는 새로운 분석 결과

62 WB ★

- 더 나은 식품시스템 만들기

64 UN ★

- 폭염과 산불로 얼룩진 북반구의 여름
- WFP 고위급 관계자, 세계가 “인도적 파멸의 고리”에 빠져들고 있다고 경고

68 France ★

- 동물복지에 관한 EU 법률 개정에서 있어 프랑스의 우선순위
- 6,000만유로 규모의 유기농 지원 계획 시행

70 USA ★

- Vilsack 미농무부 장관, APEC 식량안보장관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한 식량안보 달성 원칙 강조
-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미국에 투자하기” 의제 기반 도시농업, 식품 및 시장 접근성에 대한 투자계획 발표
- USDA 쌀 수급전망
- USDA 주요 곡물 수급통계

82 채용 공고 ★

특별기획

84 한국형 농업기술, 세계와 만나다

서아프리카 쌀 생산 및 이용 현황과 자급 달성을 위한 노력 / 조창연

92 2023 농식품 소비 트렌드

맞춤형 건강식의 핵심으로 부상 중인 메디푸드-케어푸드 시장 전망 / 임동준

특별기고

100 AARDO 극동지역사무소 설립 50주년에 부쳐 / 이준원

INFO

106 협회 소식

- FAO 한국협회,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한 GIAHS의 인식 및 이해 제고 교육(21~23) 3차년도 혼합연수 성황리에 종료

108 회원사 소식

- 국립수산물과학원 패류위생실험실,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인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해외시장 정보 구독서비스 개시

110 농식품부 소식

- 김치 수출 날개 달다
- 농식품부, 농민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케이(K)-라이스벨트 추진단(TF)」발족

## 아프리카 영양 불균형과 빈곤 해소의 열쇠를 ‘채소’에서 찾다



**장성희**  
세계채소센터 한국사무소 소장



**서윤희**  
세계채소센터 한국사무소 연구행정원

국제사회에서 지구촌의 기아 종식, 빈곤 해소를 위한 농업 분야의 협력이 다양하게 이뤄지는 가운데, 지난 2021년 대만-아프리카 채소협의체(TAVI, Taiwan-Africa Vegetable Initiative)가 공식 출범했다.<sup>1)</sup> 이는 아프리카 식량안보의 강화와 더불어 채소작물을 통한 영양공급과 아프리카 채소 생물종들의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영양학적인 면을 비롯해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고 보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만 외교부와 농업부에서 1억9,100만신대만달러(한화 약 80억원) 지원을 받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진행되는 TAVI 활동은 크게 ① 아프리카 식물유전자은행의 시설개선 및 자원 보존(에스와티니, 탄자니아), ② 아프리카 토종 채소 유전자원의 수집 및 저장, ③ 에스와티니 학교급식의 영양개선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아프리카의 영양 불균형의 해결 방안으로 ‘채소’에 주목한 것이다.

TAVI 활동을 주관하는 세계채소센터(WorldVeg, World Vegetable Center)는 채소의 생산과 소비 증대를 통해 지구촌의 빈곤과 영양결핍을 해소하고자 아시아 6개국(대만, 한국, 일본, 필리핀, 태국, 베트남)과 아시아 개발은행, 미농무부가 뜻을 모아, 1971년 대만의 선화(善化)에 본부를 설립한 농업 분야 비영리 국제기구다.

1. 세계채소센터 (<https://avrdc.org/taiwan-africa-vegetable-initiative-tavi/>)

한국의 농촌진흥청도 창립회원국의 연구기관으로서 1992년부터 상주 연구관이 지속 파견돼 채소 신품종 개발, 재배방법, 병해충 방제, 관리 및 이동 모니터링 등의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채소를 통한 세계인의 영양 개선과 건강 및 소득증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아프리카에 3개의 지역사무소(탄자니아, 베냉, 말리)와 아시아에 2개의 지역사무소(태국, 인도) 및 농촌진흥청 내 세계채소센터 한국사무소(WKO, WorldVeg Korea Office)가 있다.<sup>2)</sup>

### 아프리카 토종 채소 종자의 수집 및 보존

인류는 1900년대 이후 지구상에 존재하는 식물의 유전적 다양성의 75%를 잃었다고 한다.<sup>3)</sup> 자연에 존재하는 채소 재래종이 기후변화와 무분별한 채취, 전쟁 등의 원인으로 소실됐다. 이외에도 농업을 영리적 목적에 치중한 채 접근해 단일품종의 대량생산과 특정 형질만 집중적으로 육성했고, 이에 따라 종 다양성을 잃은 것이다. 씨앗은 한 번 사라지면 복원할 수 없기에 관리가 중요하다.

세계채소센터는 창립 이래, 전 세계 채소자원을 수집·보관해오고 있고, 현재 약 6만5,000점의 채소자원이 세계채소센터 유전자원은행(GRSU, Genetic Resource and Seed Unit)에 보존돼 있으며, 이 자원들은 대한민국의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와 노르웨이 스발바르 국제 종자 저장고에도 중복보존 과정 중에 있다. 자연의 재래종들을 유전자원은행에서 수집·보존하는 노력은 육종을 통해 개량된 품종의 개발 시에 소실될 가능성이 있는 유전자원들을 지켜주는 역할과 동시에 기후변화와 난개발 등의 산업화로 인한 멸종 위기로부터 자원을 보존하는 목적도 있다.<sup>4)</sup>

따라서 이번 TAVI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아프리카의 토종 채소 종자의 수집과 보존은 인류가 당면한 기후 위기 속 종 다양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아프리카의 재래종 채소와 그 근친종들은 아프리카 농업과 영양개선을 위해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농업적, 영양학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

해 제대로 활용되지 않으며, 심지어 멸종 위기에 처해있기까지 하다.<sup>5)</sup> TAVI 활동팀은 아프리카의 식물 다양성의 보고(寶庫)라 불리는 4개국(에스와티니, 마다가스카르, 탄자니아, 베냉)에서 25종 이상의 야생종 및

### 사진 1. 에스와티니 유전자원은행 확장을 위한 기공식



2. 강석범 대만 세계채소센터 상주연구원 전라일보 사설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36484>)

3. 유엔식량농업기구(FAO) (<https://www.fao.org/3/y5609e/y5609e02.htm>)

4. 장성희 (2021) 세계채소자원의 보존과 세계채소센터 유전자원은행. 세계 식품과 농수산. 1:18-25

5. Van Zonneveld M, Kindt R, Solberg, ØS, Danikou SN, Dawson IK. (2020) Diversity and conservation of traditional African vegetables: Priorities for action. Diversity and Distributions. 27(2): 216-232 (<https://doi.org/10.1111/ddi.13188>)

4,800종 이상의 아프리카 재래종을 수집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약 2,957종의 식물 종자를 수집했다고 밝혔다.<sup>6)</sup>

수집한 종자는 에스와티니의 국립식물유전자원센터(National Plant Genetic Resources Center)와 탄자니아의 세계채소센터 동남부 아프리카 유전자원은행에 보관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기존의 유전자원 센터의 확장 및 시설보완이 진행될 예정으로 지난 2022년 7월 기공식을 마쳤다. 또한, 수집된 종자의 전 처리 및 보관을 위한 현지 교육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sup>7)</sup>

### 아프리카 토종 채소를 활용한 국가 급식 개선 & 지역민 채소재배 역량 강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빈혈, 발육부진, 비만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영양 불균형 문제에 직면해 있다.<sup>8)</sup> 5세 미만 어린이의 약 30%가 발육부진, 가임기 여성의 절반이 빈혈에 고통받고 있으며, 성인의 약 28%가 과체중 또는 비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불어 지역의 각국에서는 기후변화와 급증하는 소아 인구로 인한 영양 수요의 충족을 주요 현안으로 손꼽고 있다. 유엔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식량 자급률이 높지 않은 아프리카의 개발 도상국들은 2020년 기준, 식량의 80%, 곡물의 92%를 타 대륙에서 수입하는 실정이다.

이에, TAVI 팀은 아프리카 토종 채소 종자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식단과 영양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에 주목했다. 아프리카 토종 채소자원은 오래전에 귀화했거나 토착종이며, 여러 세대에 걸쳐 인류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환경에 적응해왔다. 대부분 영양가가 높고, 소규모 재배가 가능할뿐더러, 작기가 짧아 현지 농업 시스템에 적용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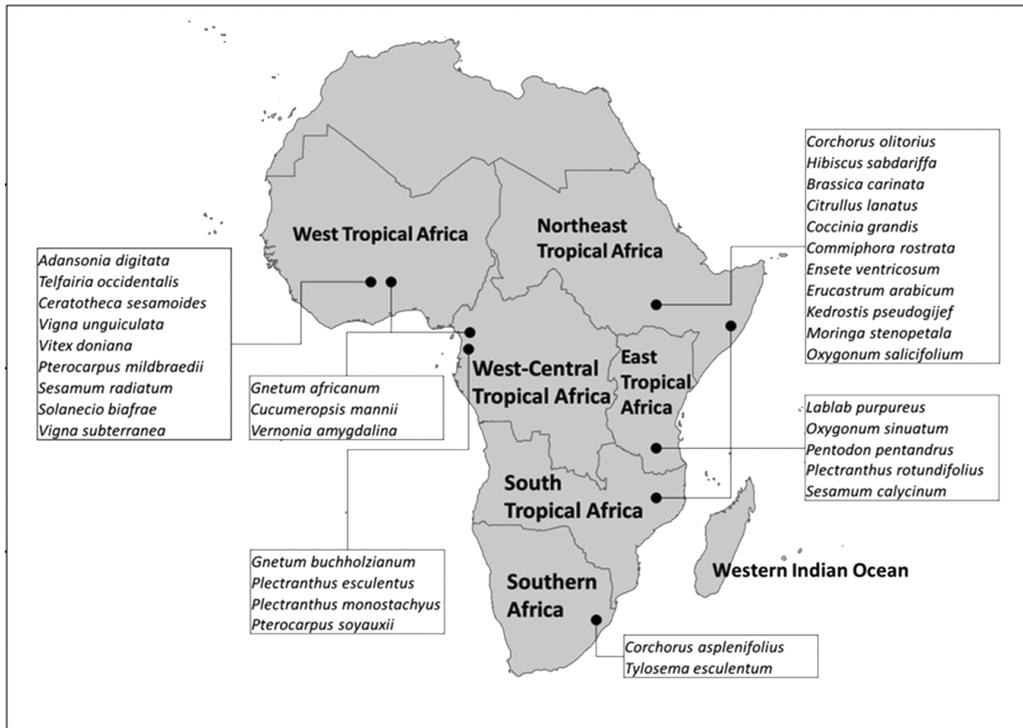
6. 세계채소센터 (<https://avrdoc.org/taiwan-africa-vegetable-initiative-tavi-launched-new/>)

7. Seed Today (<https://www.seedtoday.com/article/278479/taiwan-africa-vegetable-initiative-donates-over-5-000-seed-kits-breaks-ground-for-genebank-extension>)

8. Christian AK, Dake FA. (2022) Profiling household double and triple burden of malnutrition in sub-Saharan Africa: prevalence and influencing household factors. *Public Health Nutr.* 25(6):1563-1576. doi: 10.1017/S13688980021001750

일년생/다년생 아프리카 토종 채소 126종 중 79종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박과, 콩과, 비름 및 아욱과 작물이 주를 이룬다. 이 중 잎채소 작물인 아마란스(Amaranth), 황마 맬로(jute mallow), 스파이더 플랜트(spider plant), 에티오피아 겨자(Ethiopia mustard), 아프리카 가지(African eggplant) 등이 영양학 측면을 고려할 때 식품으로서 잠재력이 높고, 로젤(Roselle)의 꽃 기관(꽃받침)은 음료에 사용될 수 있다.<sup>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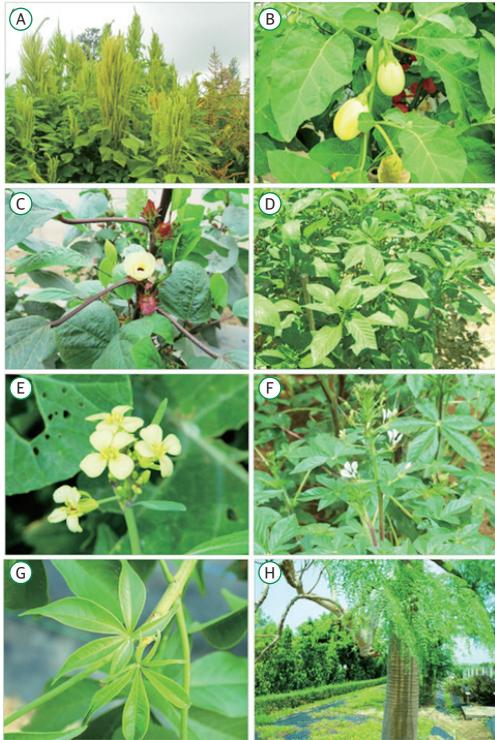
사진 2. 아프리카 전통 채소자원의 다양성이 높은 주요 지역<sup>10)</sup>



TAVI 팀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에스와티니 농업부와 협력해 현지 환경에 잘 적응하는 아프리카 토종 종자로 구성된 채소 종자 키트(아프리카 가지, 아마란스, 에티오피아 겨자, 황마 맬로, 녹두, 오크라, 호박 등 9종)를 보급해오고 있으며, 2022년 7월 기준으로 5,120여 종자들이 초등학교 16곳, 커뮤니티 센터 51곳, 농민 그룹 53곳, 80명의 모범 농민(농사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 다른 농가에 보급하는 농민)에게 전달됐다.<sup>11)</sup>

9. Van Zonneveld M, Kindt R, Solberg, ØS, Danikou SN, Dawson IK. (2020) Diversity and conservation of traditional African vegetables: Priorities for action. Diversity and Distributions. 27(2): 216-232 (<https://doi.org/10.1111/ddi.13188>)  
 10. Van Zonneveld M, Kindt R, Solberg, ØS, Danikou SN, Dawson IK. (2020) Diversity and conservation of traditional African vegetables: Priorities for action. Diversity and Distributions. 27(2): 216-232 (<https://doi.org/10.1111/ddi.13188>)  
 11. 아프리카 프레스 (<https://www.africa-press.net/eswatini/all-news/world-veg-donates-seed-kits-to-ministry>)

### 사진 3. 식품 및 영양 잠재력이 높은 아프리카 토종 채소



(A-F) 아마란스-아프리카 가지-로젤-황마멜로-에티오피아 겨자-스파이더 플랜트 순/(G-H) 바오밥나무-모링가 순 (다년생채소)

채소 종자 키트는 아프리카 채소 작물의 생산 및 활용에 관한 교육 후 배급되며, 재배를 넘어 종자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방법의 전수를 통해 지역민의 역량이 강화되고, 영양이 풍부한 아프리카 토종 채소 자원을 스스로 생산, 섭취하게 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다. 더불어 선발된 지역의 모범 농부들이 아프리카 채소를 재배하고 수확해 학교에 납품하고, 배달된 채소는 학교급식에 사용돼 학생들의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돕는다. 많은 현지 학생들의 영양 섭취에 있어, 현실적으로 학교급식에 크게 의존하는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TAVI 팀은 올해 기준 약 1만명 이상의 어린이가 아프리카 채소를 섭취해 영양 상태가 개선됐다고 밝혔다.<sup>12)</sup>

채소 종자 키트의 보급은 아프리카 미래세대의 교육적 측면에도 의미가 있다. 키트를 보급받은 각 학교에서 2명의 교사가 기술 훈련을 받아 학생들에게 원예 교육을 진행한다. TAVI 팀은 현장 실습에 필요한 교내 텃밭 조성을 위한 장비와 도

구를 추가 지원했으며, 아이들은 교내 텃밭에서 채소재배와 병해충 관리 등을 배운다. 또한, 학습을 마친 학생들에게는 채소 종자 키트를 배부해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채소를 재배하도록 유도한다.

### TAVI 활동의 시사점 및 국제 협력의 중요성

기아 극복, 영양개선 및 빈곤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농업 분야 협력 사례로 대만-아프리카 채소 협의체의 활동을 살펴봤다. TAVI 활동은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아프리카 토종 채소자원을 수집·조사했고, 영양적 잠재력이 높고 현지 환경에 재배 적합한 채소자원을 활용해 지역민의 영양개선에 도움을 줬다. 그 과정에서 단순 채소 키트 보급이 아닌, 교육과 훈련을 통한 개발도상국 현지인들의 자급자족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적절한 영양소 섭취를 가능하게 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12. 세계채소센터 (<https://avrdc.org/childrens-meals-are-getting-greener-in-eswatini/>)

**사진 4. 에스와티니 Shiselwini 지역의 Engudzeni 초등학교에서 진행되는 원예 수업**



**사진 5. 영양분이 풍부한 아프리카 토종 채소로 구성된 에스와티니 학교급식**



더불어, 아프리카의 잠재력 있는 채소들을 연구하고 빠르게 진행 중인 기후변화에 발맞춰 미래 기후에 적응할 수 있는 채소 작물개발을 위한 유전자원을 확보했다. 국내에서도 기후변화 등의 원인으로 내서성(耐暑性) 작물의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저위도지역의 다양한 병해충 유입 및 성행이 문제가 되면서, 저위도 지역 유래 자원의 필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여러 생물학적, 비(非)생물학적 스트레스에 저항성을 가진 작물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유전자원이 필요하다. 연구 역량을 갖추지 못한 저개발 국가에 채소재배와 섭취의 촉진을 통해 국민 영양 상태 개선을 유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채소자원의 수집과 보존, 증식을 위한 노력은 지구촌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일’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가 직면한 기후와 식량안보의 위기는 특정 국가에 국한하지 않는 인류 공동의 과제다. 지구촌의 생태계는 수많은 사슬로 연결돼 있기에, 기후변화와 식량안보에 있어 농업 부문의 국제 협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줄어드는 자생종을 보존하고, 증식하는 일은 미래세대를 위한 일이다.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채소 작물을 포함한 생물의 다양성 보존을 위한 연구 투자가 이뤄지고,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TAVI 활동은 이를 실천하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